

정하는 기념비로 여기며 그 나무줄기에 입을 맞추고 사랑과 회한이 가득 담긴 말을 건네기도 했지. 오, 우리네 숲에 아직까지 후손이 남아 있는 나무여, 나 자신은 로마인들의 개신문을 볼 때보다 더 큰 공감과 존경을 가지고 당신을 보아왔습니다! 매일같이 왕들의 야망이 이룩한 기념비를 허무는 자연이시여, 이 숲에서만큼은 어리고 가련한 한 소녀의 덕행이 담긴 저 기념비를 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!

그래서 내게는 풀이 우리 동네에 오는 날엔 이 파파야 나무 아래서 그를 마주치리라는 확신이 있었네. 어느 날엔가 나는 우울함에 갇혀 있는 풀을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, 만약 내 긴긴 여담이, 물론 내 나이도 나이지만 내 마지막 우정임을 고려해 그냥 넘어가줄 만도 한 것이겠으나, 자네를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면, 이제부터 그걸 들려줄 생각일세. 나는 자네가 이 젊은 청년이 가진 타고난 분별력을 판단할 수 있게끔 실제 대화 형식으로 들려주겠네. 그러면 그의 질문과 나의 대답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미루어 보아 말하는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쉬울 게야.

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네.

“저는 너무 애통합니다. 라 투르 아가씨가 떠난 지 벌써 2년 2개월이나 지났고, 8개월 하고도 또 반이 지나는 동안 전해진 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녀는 부자고, 나는 가난합니다. 그래, 그녀는 나를 잊어버린 거겠죠. 배를 타야